

대체로 평이한 수능? 만만한 문제는 없었다

영역별 난이도 분석

14일 치러진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국어·수학·영어영역은 모두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지만, 기본적인 난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항들이 곳곳에 배치돼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국어의 경우 매력적인 오답을 뛰어넘어 깊은 사고를 요구하는 선택지가 많아 까다로운 시험으로 진단됐다.

◇국어=EBS는 변별력이 높은 문항으로 독서의 경우 '서양 과학 및 기술 수용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룬 지문을 바탕으로 두 학자의 견해를 비교·대조하는 7번 문항과 '기계 학습과 확산 모델'을 다룬 지문을 실제 사례에 적용하는 13번 문항을 꼽았다. 문학에서는 이광호의 '이제 되도록 편지 안 드립시다'를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는 27번이 EBS 수능 연계교재에 수록되지 않은 생소한 작품이라 수험생에게는 다소 부담이 됐을 것으로 봤다. 화법과 작문에선 초고를 보완하기 위한 자료 활용계획을 묻는 45번, 언어와 매체에서는 간접 인용에 대한 이해를 묻는 39번의 변별력이 높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로학원은 "문학부분에서 시, 소설 등에서 EBS와 연계되지 않은 작품들이 출제, 생소하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과 비교했을 때 약간 쉬울 수 있으나, 수험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문학부분에서 시, 소설 등에서 EBS와 연계되지 않은 생소한 작품들이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영어=EBS측은 영어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쉽게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학생들에게 친숙한 소재가 많이 등장했으며, 지나치게 추상적

국어 '매력적인 오답' 다수 영어, 지난해 수능보다 쉬워 33·37번 까다롭게 느꼈을 것 수학, 공교육으로 충분히 대비

이거나 전문적인 개념을 다루는 길러문항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문 자체는 어렵지 않으면서도, 지문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지나 주제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항을 다수 배치했다고 진단했다.

난도 높은 문항으로는 빈칸 추론 34번 문항을 꼽았다. 사람들의 역할과 관행을 만들어내는 규칙을 설명하는 글인데, 지문의 내용을 선택지와 연결지어 종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평가했다. 순서 37번 문항은 특정 조류의 행동 특성을 감정 전이(emotional contagion)와 관련해 설명한 글이다. 주어진 문장 뒤에 (B)를 연결하는 것은 비교적 쉬웠으나, (A)와 (C)의 순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A)에 사용된 문장 구조와 'would have been'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항이다.

중로학원은 "영어가 절대평가지만, 1등급 비율이 상대평가와 비슷하게 출제돼 영어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꼈을 문제로 33번(빈칸 추론, 배점 3점), 37번(글의 순서, 배점 3점) 문제를 꼽았다.

◇수학=EBS측은 "이번 수능에서 출제된 모든 문항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및 EBS 수능 연계교재 등에서 자주 다루는 내용으로, 공교육을 통해 충분한 대비를 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고 분석

2025학년도 대학입시 주요 일정

2024 11월	14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4~18일	문제 및 정답의의신청
12월	6일	수능성적통지
	13일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
	16~18일	합격자 등록
	26일	미등록충원 합격통보마감
	27일	미등록충원 등록마감
	31일	정시모집 원서접수 시작
2025 1월	3일	원서접수 마감
	7~14일	가군 전형기간
	15~22일	나군 전형기간
	23~2월 4일	다군 전형기간
2월	7일	합격자 발표
	10~12일	합격자 등록
	19일	미등록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일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

연말뉴스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했다.

하지만, 공통과목 22번(수학 I)과 21번(수학 II), 확률과 통계 29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문항들의 변별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공통과목 22번(수학 I)의 경우는 주어진 규칙에 따라 수열의 항들을 나열한 후 조건을 만족시키는 첫째항들을 구하는 문항으로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로 해석됐다. 공통과목 21번(수학 II)의 경우 극한값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4일 광주시교육청 26지구 제26시험장인 남구 광주대성여자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이용해 함수를 추론하고 문자로 주어진 계수의 범위를 이용해 함수값의 최댓값을 구하는 문항이다.

확률과 통계 29번의 경우는 정규분포에서 두 개의 확률변수가 조건을 만족시키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찾는 문항이다. 미적분 30번의 경우는 삼각함수와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해 주어진 함수가 극대인 점을 추론하는 문항이다. 기하 30번의 경우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점을 찾고 평면벡터의 내적의 최댓값과 최솟값을 구하는 문항으로 벡터의 연산, 위치벡터, 내적의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해 해결하는 문항이다.

중로학원은 공통과목이 전반적으로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임성호 중로학원 대표는 "지난해보

다는 전체적으로 난도가 낮지만 기본적인 변별력은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의대 등의 최상위권 변별력은 지난해보다 낮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택과목에서 미적분, 기하는 지난해 수준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어렵게 출제됐고, 선택과목 확률과 통계는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거나 쉽게 출제됐다고 했다.

어려웠던 문제로 공통과목에서 20번(지수함수, 배점 4점, 주관식), 선택과목에서는 미적분 30번(미분, 배점 4점, 주관식), 기하 28번(공간도형, 배점 4점, 주관식), 확률과 통계 30번(확률, 배점 4점, 주관식)을 꼽았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수능최저기준 충족 가능성 높다면 수시 주력 평소보다 성적 잘 나올 것 같다면 '정시 올인'

포스트 수능 전략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마무리되면서 대입전형은 2라운드에 돌입하게 됐다.

수능을 마친 수험생들은 이날 공개된 수능 영역별 정답을 확인, 가채점을 통해 자신의 성적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능은 재수생 등 'N수생'이 이례적으로 많아 변수가 예상됨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광주·전남지역 현장 교사와 수도권 입시 전문가들은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한 뒤, 최상의 대입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선 수능시험이 끝나면 가채점을 정확하게 해 영역별 예상 등급을 확인하고 남은 수시 일정에 대비해야 한다.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을 파악한 후 수능 이후 계속되는 수시 전략

을 세우면 된다.

수능 가채점 결과를 기준으로 평소보다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 이미 지원한 수시 대학별고사에 주력하는 것이 좋다. 수능 직후부터 대학별고사가 실시 예정이기에 수시 지원 대학 중 합격 가능성이 큰 대학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때 유의해야 할 대목은 주요 대학 대부분이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수능최저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이다. 본인의 수능 성적이 수시 지원 대학들의 수능최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만약 예비 합격 명단에 포함돼 있고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한다면 합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가채점 결과로 정시에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수시 지원 대학보다 상위권 대학이라고 판단되면 대학별고사를 포기하고 정시모집에 집중하는 지원 전략을 짤 수도 있다.

정시에서는 수능성적이 가장 중요한 전형요소이다. 올해도 대부분의 대학이 정시모집에서 수능성적으로 선발한다. 통합형 수능이 된 이후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다. 하지만 수학과 탐구에서의 선택 과목은 지정 대학은 많이 줄었지만, 특정 과목에 가중치를 주는 대학도 있다. 모집단위별 합격선 근처에서는 동점자 처리 규정도 잘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및 일부 대학의 의예과에서는 인·적성 면접고사를 시행한다. 따라서 수능을 포함한 전형요소별 반영방향을 잘 확인해 지원전략을 세워야 한다. 수능 영역별 반영방향이 대학마다 다양하고 같은 대학 내에서도 모집단위에 따라서 다른 경우도 있다. 영역별 반영비율이 다를 경우 반영비율이 높은 영역에서 점수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시에서 수능성적 반영은 표준점수와 백분위 중 하나를 활용한다. 대체로 상위권 대학에서는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백분위를 활용한다. 표준점수를 반영하는 대학 중에서 국어, 수학은 표준점수를 활용하고 탐구 영역은 대학에서 별도로 발표하는 변환표준점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의대 증원 등 '대입 변수' 대응책 알려준다

광주시교육청, 연말까지

광주시교육청이 2025학년도 수능시험 이후 수험생 지원에 나선다.

14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수능 당일인 14일부터 12월까지 다양한 대입 지원대책을 실시한다.

의대 정원 증원, 무전공 선발 확대, 첨단학과 증원, 정시모집 다군 모집대학 확대 등 다양한 입시 변수에 대응해 수능 이후 수험생에게 필요한 대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골자다.

시교육청은 오는 20일 오전 9시 광주대학교 행정관과 성실관에서 학교 추천을 받은 고3 수험생 100여명을 대상으로 수시모집 대비 서울권 대학 모의면접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광주진학부장협의회 소속 고3 진학부장들이 참여해 대학별 면접 문항을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대학 면접처럼 진행한다.

이어 12월 6일 수능성적이 학생들에게 통지되

면 실적점 성적을 분석해 12일 오후 7시 고3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정시모집 대입 지원 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시모집 대비 집중상담 주간도 운영한다.

12월 18~23일(일요일 제외 5일간)에는 광주진로진학지원단 소속 진학상담 교사들이 광주진로진학지원센터(교육연구정보원 3층)에서 정시모집에서 대학을 지원하는 고3 수험생과 학부모, 졸업생, 검정고시생, 학교밖청소년 등 200여명(온라인 신청)을 대상으로 1대 1 대면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시간은 1인당 40분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수능 성적은 자신이 지금까지 노력한 과정에 대한 소중한 결과"라며 "수험생을 위해 다양한 대입지원대책을 마련했으므로, 입시변수에 잘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자신이 기대하는 수능 성적보다 조금 낮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당차게 나아가는 자랑스러운 광주 학생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사랑과 감사의 70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4]

전제이사장 나학수 목사 (광주거주사교회)
법인이사장 김용대 목사 (영광대학교)
총장 김경윤 박사

2025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수시	정시
인문사회	30	5
사범	1	1
예능	24	5
총계	84	21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학부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2024. 12. 31.(화) ~ 2025. 1. 3.(금)

· 전형일: 2025. 1. 13.(월)

www.kwangshin.ac.kr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For the Lord To the World
주님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